

외국의 쉼터 운영 사례

우리 나라의 쉼터와 비교하여 외국의 쉼터들은 오랫동안 감염인/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나름대로의 경험들을 축적해 왔기에 그들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쉼터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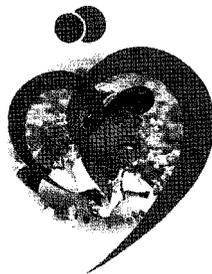
태국에는 감염인 단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쉼터 역시 그 기능과 특성별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태국 쉼터의 특징은 건강한 감염인을 위한 쉼터와 에이즈가 진행중인 환자를 위한 쉼터가 자연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특정 감염그룹을 위한 쉼터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출라롱콘 병원내 상담실은 4층 전부를 면역클리닉으로 사용하는 외래 진료실과 나란히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실은 감염인 단체와 연계되어 있어 이곳 병원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이 상담실에서 최초의 상담이 실시됩니다.

감염인 쉼터는 감염인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곳입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정기모임을 통한 친목도모 및 협력증진, 강



외국의 감염인 쉼터는 대부분 단순히 감염인들을 위한 보호와 복지시설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에게 만남과 대화의 장소를 마련하며 나아가 활발한 감염인단체의 활동으로 자신들의 권익 보호와 대외적인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연회 개최, 레크리에이션 활동, 모금활동, 정기회지방간, 에이즈 전문병원의 운영/지원을 위한 모임 등입니다. 이러한 감염인 단체가 태국 내에 176개가 있다고 합니다.

에이즈 환자 요양소는 방콕에서 북쪽으로 150km 떨어진 불교사원 내에 환자 요양시설을 갖추고 주지 스님이 운영하고 있으며, 30~90여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증세가 가벼운 감염인과 환자들이 증상이 심한 환자를 돌보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머시센터(Mercy Center)는 태국 인간개발센터(HDC)가 운영하며 집없이 떠도는 아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에이즈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이곳에서 요양하며 힘을 얻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도 하고 일부 환자들은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아가페 홈(Agape Home)은 아이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이름처럼 부모로부터 감염된 아기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에 위치해 있으며 자

선거나 일반인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웰컴 하우스(Welcome House)는 방콕에 위치한 조그마한 컴퓨터 제복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의 냉대와 고립감을 느끼는 어떤 감염인도 이곳에서는 환영받으며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2. 필리핀

Pinoy Plus는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감염인을 위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감염인/환자들의 보호와 지원, 개개인의 인권보호, 에이즈의 예방에 전력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계, 재가 서비스, 병원에서의 치료, 연중 활동, 생계 해결 프로그램, Art Therapy, 정신적 도움, 동료지지 그룹, 서비스제공자와 병원, 자원봉사자와 연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일본

감염인 쉼터는 에이즈 민간단체인 PLACE TOKYO가 도쿄 시내 한 아파트에서 비밀스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감염자들의 친목모임과 정보제공이며 운영비의 일부를 도쿄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근처에 에이즈 지정

병원이 있어서 감염자들이 병원방문 전과 후에 이곳을 들러 잠시 쉬었다 가는 곳으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4. 말레이시아

호스피스 카하야(Hospis



필리핀 감염인이 만든 수공예품과 쉼터 내부

Cahaya)는 수도 팔라뮤푸드에 있으며 가장 인간적이고 종합적이며 비용절감적인 간호와 간병을 에이즈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이 단체는 주로 가정간호에 주력하여 환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를 위한 교육과 상담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5. 미국

미국의 에이즈 쉼터들은 비교적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기본적인 숙식, 상담에서부터 호스피스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이즈환자 요양소인 GENESIS는 플로리다에 위치하며

종교와 인종과 성별에 관계없이 집이나 가정이 없는 에이즈 환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로부터 허가를 받고 마리아미 천주교 교구의 보호 아래 수녀님이 운영합니다. 레스토랑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간호와 함께 개인 상담원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에이즈가 한창 진행 중인 환자들이어서 주변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선가와 일반인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외국 쉼터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 쉼터 가까이에 에이즈 전문병원이 있다.

나. 상담실을 갖추고 있다.

다. 쉼터의 주 이용대상이 구별되어 있다.

그밖에도 외국의 감염인 쉼터는 대부분 단순히 감염인들을 위한 보호와 복지시설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에게 만남과 대화의 장소를 마련하며 나아가 활발한 감염인단체의 활동으로 자신들의 권익 보호와 대외적인 예방활동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

신 남 현 / 본회 사업과